■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19-352.
http://doi.org/10.17948/kcs.2021..91.319

일본의 식민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의 교차로, 사진결혼(1910-1924)*

노선희(魯仙熙)**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인신부의 사진결혼
3. 사진신부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
4. 나오며

국문초록

사진결혼은 1910년에서 1924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사진결혼의 초기에는 신랑신부의 가족이나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이후에는 '인물거간군'의 활동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사진신부들이 많았다. 한인신부들은 인물거간군의 도움으로 사진촬영을 한 후 사진교환을 통해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결정하였다. 혼인이 성사된 한인신부는 '호적등록-여권발급-호적발급-미국비자발급-건강검진-이민심사'의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여권이 모든 신부들에게 발급된 것은 아니었다. 여권발급이 거부된 신부들은 중국 상해에서 밀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후 이민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하였다. 한인의 사진결혼은 당시

* 부족한 원고를 섬세하게 읽고 진심어린 충고와 제언을 보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 박사수료.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 한인신부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이 작동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과 조선인의 ‘미화된’ 미국이 겹쳐져서 나타난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식민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라는 상반된 이데올로기가 조선에서 교차하여 사진결혼으로 재현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진결혼은 20세기 전반기 조선 여성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사진결혼, 사진신부, 일본의 식민주의, 미국의 제국주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

1. 들어가며

오늘날 전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인류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중 인간의 이동과 관련된 분야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양상이다. 그에 따라 대륙 혹은 국가 사이의 이동도 이전에 비해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 세계화의 물결이 온 지구촌을 덮었던 지난 세기 인류의 이동과 이주현상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실 인구의 이동 곧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현상이기도 하다. 근대 이후 교역의 증가에 따른 노동이주의 확산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등이 이러한 이주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과거 노동이주의 사례는 남성의 경험이 다수였지만 이후 이주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 남성의 이주와 달리 여성의 이주에는 노동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결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국제결혼은 지역별로 다양한 역사와 사례가 존재한다. 그런데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주의 여성화 곧 결혼이주라는 현

1) Piper, Nicola., “Gendering the Politics of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40, No.1, 2006; 황정미,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Gabaccia, Donna R., “Feminization of Migration”,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Malden, MA: Wiley-Blackwell, 2016.

상이 나타났다. 바로 사진신부의 출현이었다.

사진신부는 1908년에서 1945년[2] 사이에 미국으로 노동이주를 한 남성 노동자의 아내가 된 여성집단으로 정의한다. 사진을 교환하는 방식의 사진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사진신부들은 일본여성, 한인여성 그리고 1924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 이후에도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유럽여성까지 포함한다. 그중 한인 사진신부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사진결혼을 통해 하와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의 미 대륙으로 결혼이주한 한인여성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한인신부들이 노동이주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던 하와이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하와이 사진신부'라는 용어로 불리면서 미주한인사회의 일부로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이들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3]와 독립운동사[4]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사진신부를 분석한 연구도 진척되었다.[5] 한인신부의 사진결혼은 외국 국적자와 혼인하여 배우자 중 한 명이 국제이주를 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종족(inter-ethnic)간 결혼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종족간 결혼은 이민자로서 자기 종족의 공동체 외부의 사람과 결

2) 사진신부의 유입시기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종료시기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유입된 미군의 아내인 전쟁신부와 구별하는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1945년을 유럽인 사진신부의 종료의 시기로 그리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일본인 사진신부의 유입이 가시화된 미국과 일본의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의 시기인 1907년부터 1908년 사이를 유입시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3) 미주한인에 대한 연구는 1909년 현순의 『포와유람기』를 시작으로 국내외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하와이 한인에 대해서는 패터슨(Patterson)의 『아메리카로 가는 길: 한인 하와이 이민사, 1896~1910』과 『하와이 한인 이민 1세』가 눈에 띄며 최근 연구로는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구술과 기록을 편찬한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를 주목할 만하다.

4) 미서부 지역의 사진신부의 독립운동은 박용옥과 하와이의 사진신부의 활동은 홍윤정과 오은영은 각각 하와이 지역의 한인여성단체의 독립운동을 분석하였다. 박용옥, 「美洲 韓人女性團體의 光復運動의 支援 硏究」,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1994; 홍윤정, 「하와이 한인사회의 형성과 애국의식 연구: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5; 오은영,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5) 강진구는 한인의 국제결혼의 계보학의 연구의 맥락에서 사진결혼제도를 논의하였다. 그는 1920년대 사진결혼의 폐해를 담은 희곡인 윤백남의 『운명』과 노동이민과 사진신부를 소재로 한 1930년대 주요섭의 소설 『구름을 잡으려고』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진결혼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강진구, 「국제결혼담론의 계보학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0-2, 숙명여대 아시아연구원, 2011.

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6] 한인신부의 결혼은 국제결혼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가 아니었으므로 부적합하다. 또한 이를 종족 간 결혼이라고 명명하기에는 한인신부들이 본국에서 혼인을 예정하고 이주하여 결혼식을 한 후 이민자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한인신부들은 국제결혼과 종족 간 결혼 그 경계선에 놓인 여성들로 볼 수 있다.[7] 이와 같이 경계선에 놓여 주변화된 한인신부들은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비가시화된 측면이 존재한다.[8]

본고에서는 한인신부의 비가시화된 측면들 가운데 사진결혼의 과정과 동기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사진신부의 구술과 미국 이민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진결혼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9] 이를 위해 당시 '인물거간군'으로 불렸던 이들이 사진결혼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이후 식민지 정부로부터 도항면허장이 발급되어 미국으로 이주한 사례와 면허장을 발급받지 못해 밀항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사례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진신부집단이 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 정치・사회・문화적 요인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조선사회에서 재현된 미국의 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인의 '상상된' 미국이 한인신부의 사진결혼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

6) 김민정, 「미국가기와 결혼하기: 하와이 한인 이주여성의 종족간 결혼」, 『가족과 문화』 24-3, 한국가족학회, 2012, 99면.

7) 사진결혼을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동일한 혈연과 문화 공동체로 간주되는 종족(ethnic group) 간 결혼이라는 점에서 '종족 내혼'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는 미국 이민법의 적용 전의 결혼이므로 '국적제도가 자리 잡기 전 국제결혼'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한인신부는 미국에서 주로 연구되었는데 이들의 생애사와 구술사 연구가 진척되었다. 그중 Sonia Shinn Sunoo, *Korean Picture Brides 1903-1920 A Colleciton of Oral Hisotiries*, Xlibris Corporation, 2002와 이선주・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이화여대 출판부, 201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9) 사진신부 사료 중 일본인신부를 제외한 자료들은 많지 않다. 이는 한인신부도 마찬가지이다. 1차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한인신부들이 노년이 되어 채록된 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사용된 구술자료는 사진결혼이 발생한 시기와 기록된 시간상의 차이로 인해 기억의 왜곡 혹은 미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2. 한인신부의 사진결혼

1) '인물거간(人物居間)군'의 활약

한인의 사진결혼은 크게 지인의 알선과 인물거간군의 중매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진결혼의 초기에는 노동이주를 떠난 남성의 지인들 가령 동향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출신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 통해서 이루어졌다.

> "마산(馬山) 마동면(馬東面) 김남리(金南里) 18세 된 계집은 그 동리 일경에는 아름다운 계집으로 칭호가 있던 터이라 작년 겨울에 미령(米領, 미국) 포아[10][布哇, 하와이]에 있는 이모 38세 된 자로부터 사진결혼의 소개가 있어 피차 신분을 조사한 결과 나이도 틀리지 않은 일을 알고 다만 사진의 얼굴만 보고 허락이 되어 그 사나이가 여비 이 백원을 보낸고로 김성녀는 내지 외무성에 도항면허장을 얻어가지고 지난 2월 25일 구마산을 출발하였는대 구마산 순사파출소의 조사한 바를 듣건대 사진만 보고 결혼이 되어 포와[하와이]에 건너간 자가 대정(大正) 2년에는 8명이오, 동삼년에는 6명이오, 본년에 들어서는 전기 김성녀를 합하여 3명인즉 통계가 17명의 다수에 달한다는대"(현대어 표기-인용자)[11]

위의 기사는 지난 3년 동안 마산에 거주하는 미혼여성들 가운데 17명이 사진결혼을 하여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는 내용이다. 특히 사진신부 김성녀는 이모를 통해 소개를 받아 내지 외무성에서 도항면허장을 얻어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알리고 있다. 이 기사는 사진결혼이 시작된 1910년 이후 대략 5년 후의 기사이다. 적어도 사진결혼의 초기에는 신부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인의 소개로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사진신부들은 인물거간군이라고 불린 중매인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경상도 함안지역에서 활동한 '진주할머니'라는 인물거간군과 사진신부 이영옥과의 대화이다.

---

10) 『매일신보』 원문에는 '포아'로 표기되어 있으나 한자의 원음은 '포와'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에서 하와이를 표기할 때 '포아' 혹은 '포와'를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11) 「태평양을 격하여 사진으로 결혼, 미국에 있는 신랑 조선에 있는 신부」, 『매일신보』, 1915.3.6.

인물거간군: 너희들 함안학교의 구 선생님을 알지? 그 분의 여동생이 얼마 전 하와이로 가서 한인남성과 결혼했단다. 최근에 그 가족들은 현금과 비싼 옷을 선물 받았지. 내가 너희라면 하와이로 갈 거다. 거기에서는 끼니와 땔감 걱정이 없단다. 여기서 혼인하면 죽을 때까지 남편과 시부모의 종이 되는 거잖아. 하와이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다.

이영옥: 우리가 미국인과 혼인하는 건가요?

인물거간군: 아니. 너희들은 한인남성과 혼인할 거야.

이영옥: 우리가 어떻게 하와이에 있는 남자를 찾아요?

인물거간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그게 내 일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사진만 찍으면 된다. 혼인은 사진으로 성사되는 거란다.

이영옥: 우리는 사진 찍을 돈이 없어요.

인물거간군: 내가 다 준비해준다니깐. 너희가 사진 찍을 준비가 되면 일본인 사진사를 데려오마.[12]

이와 같이 진주할머니와 같은 중매인들은 조선 각지에서 인물거간군으로 활동하며 어린 소녀들에게 사진결혼을 권유하였다. 위의 대화에서 드러나듯이 중매인은 어린 소녀들이 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심과 봉건적 결혼생활에 대한 반발 심리를 활용하였다. 또한 가족들에게 경제적 원조를 줄 수 있다는 희망도 제시하였다. 예컨대 사진결혼을 하면 미국에 갈 수 있고 시부모가 없으므로 시댁살이가 없으며 친정식구들에게 돈과 옷을 보내줄 수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이들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혼인이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혼담이 오가는 과정 중에 혼인이 깨지는 등의 위험요소들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인들은 혼인이 성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고수익을 얻는 방식을 취하였다.[13] 가령 중매인은 사진을 찍을 형편이 안 되는 소녀들에게는 자비를 들여 사진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신부들을 모집하였다. 중매인은 이렇게 모집된 신부의 사진을 모아서 미국으로 보내었고 신랑들은 그 사진들을 보고 신부를 선택하였다.

12) Yoon, *The Passage of a Picture Bride*, Pacific Rim Press, 1994, pp.19-21.

13) 사진신부 이영옥에 따르면 진주할머니의 경우 사진신랑 한명 당 50달러 곧 100엔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 20달러는 사진촬영 비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개인의 최종 수수료는 30불이었다. Ibid., p.25.

이후 신랑과 신부의 사진교환을 통해 혼인이 성사되면 중매인들은 그제야 신랑을 통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인의 사진결혼에서 인물거간군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사진결혼의 초기에는 신랑신부의 가족이나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진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인물거간군이라는 직업이 생겨나고 이들의 활약도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더 많은 수의 신부들이 사진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14]

2) 사진결혼의 성사

사진결혼과정에서 신랑과 신부의 사진교환과 서신교환 등은 사진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와 관련된 공식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진결혼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진신부 박계율, 이계만 그리고 이영옥의 구술자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이 어떻게 사진과 서신을 교환한 후 혼인을 결정하였는지 그리고 가족의 반대를 어떠한 전략으로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진신부 후보자들은 인물거간군의 도움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 "이씨 부인[인물거간군]은 다른 지원자들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같은 사진을 찍기 위해 나를 사진관으로 데려갔다. 순간 꽤 겁이 났고 심장은 몹시 두근거렸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부모님 모르게 벌어졌다. 그 당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여자아이들은 스스로 남편감을 고르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어머니가 사진신부에 지원서를 낸 것을 알면 크게 화내실 거라는 걸 알기에 몹시 두려웠다."[15]

친구들을 통해 사진결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녀들은 수소문을 하여

14) 신성려가 인터뷰한 19명의 사진신부의 구술을 분석해보면 대략 80%(15명)의 신부들은 자원해서 미국에 온 반면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한 사례는 대략 20%(4명)에 불과했다. Sunoo, Op. cit.
15) 사진신부 박계율의 구술 내용 발췌함, 이경원 외, 장태한 옮김, 『외로운 여정』, 고려대 출판문화원, 2016, 63면.

인물거간군을 만났다. 이후 소녀들은 그들이 소개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위의 진술처럼 소녀들은 가족 특히 어머니가 반대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가족들 몰래 사진결혼을 진행했고 혹시나 가족이 알게 될까봐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다음으로는 신랑과 신부 모두 여러 장의 사진들을 서로 맞교환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들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 "가족 이외 성인 남자를 사진을 통해 처음 봤기에 몹시 긴장했으나 흥미롭기도 했다. 밖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남자와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래로 향하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16)

10대 중후반이었던 사진신부들은 당시 관습에 따라 성인남성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홀로 외출하는 것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을뿐더러 집 안에서조차 남자를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 놓였던 소녀들은 인물거간군이 전해 준 남성들의 사진이 신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인용문처럼 자신의 남편감을 스스로 고르는 것이기에 이들은 긴장되고 떨리는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출과 함께 집 안팎에서 남성과의 눈맞춤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봉건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어린 신부들은 가족 특히 어머니와 감정적으로 분리되면서 점차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내면을 확립해 나갔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발생한 서신의 교환이었다.

> "드디어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받아 보았는데 내 눈에 그가 무척 잘생겨 보였다. 나는 몇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혼을 결심했다. 얼마 후 그는 미국에 갈 수 있는 운임 50달러를 보내왔다. (…) 마침내 남편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뱃삯과 충분한 경비 보내왔다. 만약 내가 마음이 바뀐다 해도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돈이었다."17)

---

16) 사진신부 박계율의 구술 내용 발췌함. 같은 책, 64면.
17) 사진신부 이계만의 구술 내용 발췌함. 같은 책, 81면.

인물거간군을 통해 자신의 사진을 보낸 후 신랑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편지를 교환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서신들이 연애편지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신랑들은 자신의 사진 뿐 아니라 돈을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결혼이 결정되면 신랑들은 운임비를 포함하여 대략 100불을 인물거간군에게 보냈다. 그 가운데 50불이 미국으로 가는 운임비로 사용되었다. 위의 인용문처럼 미국으로 오는 운임비 뿐만 아니라 여분의 비용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18]

사진결혼이 결정된 이후 신부들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만 했다. 당시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했고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부장 곧 법적 호주인 아버지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19] 그러나 가족과 친척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 "그런데 먼 친척이 '우리 집 안에서 창녀로 팔려가는 여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나의 결혼과 미국행을 결사반대했다."[20]

위의 인용문처럼 사진신부 이계만의 경우 먼 친척까지 집으로 쫓아와 그녀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사진신부 박계율의 경우 일본유학 후 귀국한 큰오빠에게 먼저 사진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는 평소에도 봉건적 생활에 얽매여 사는 조선의 여성이 불쌍하다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곤 하였기 때문이었다.[21] 그러나 오빠는 박계율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이므로 집에서 나가야된다고 했다.[22]

> "어느 날 밤 나는 시아버지가 될 분에게 편지를 썼다. (…) 시아버지의 방문으

18) 사진신부 이영옥의 신랑은 그녀의 가족을 위해 총 850불의 돈을 보내기도 하였다. Yoon, Op. cit., p.31.
19) 예컨대 1915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진신부 이메리에 따르면 아버지가 부재했던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출생증명서'를 얻은 이후에야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Sunoo, Op. cit., pp.195-196.
20) 사진신부 이계만의 구술 내용 발췌. 이경원 외, 장태한 옮김, 앞의 책, 81면.
21) 사진신부 박계율의 구술 내용 발췌. Sunno, Op. cit., p.268.
22) 사진신부 박계율의 구술 내용 발췌. Ibid., p.271.

로 나는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다."[23]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박계율은 사실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였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편은 이번 해 농사를 망쳐서 결혼할 수가 없다고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이 이전의 편지에 소개했던 고향의 주소로 편지를 썼다. 몇 주 뒤 시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고 그녀를 시댁으로 데려갔다. 박계율의 경우 맏며느리로 시댁에서 생활하며 이후 시아버지의 장례까지 다 치른 후에야 비로소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집안에서는 나를 가두고 질책하게 심하게 체벌하였다. 이렇게 벌을 받음으로써 나는 중매인을 통해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은근히 느꼈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히려 벌을 받는 게 시원했다."[24]

이계만의 경우 가족의 반대는 외출금지와 체벌로 대체되었다. 위의 인용문처럼 신부는 체벌의 과정에서 부모님 몰래 사진결혼을 추진한 죄책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먼 친척까지 나서서 집안망신이라며 그녀의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한 상황이었으나 결국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이계만은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진결혼의 과정은 '신부의 사진촬영->신랑과 신부의 사진교환->신랑과 신부 간 서신교환->신부의 가족과 친척들의 반대->신부의 문제해결'의 순서를 거쳐 혼인이 성사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도항면허장과 밀항

사진결혼이 성사된 신부들은 일본여권과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총독부 내지 외무성으로부터 도항면허장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도항면허장이 모두에게 발급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신부들은 밀항을 시도하였다.

23) 사진신부 박계율의 구술 내용 발췌. 이경원 외, 장태한 옮김, 앞의 책, 64-65면.
24) 사진신부 이계만의 구술 내용 발췌. 같은 책, 81-82면.

"나는 조선에서 몰래 도망쳤다. 상해로 가야만 했다. 상해에서는 중국옷을 입었다. 나는 신의주로 간 다음 안동현 그리고 마침내 상해에 도착한 후 미국에 왔다. 당시에 많은 한인들이 비자 없이 미국에 왔다. 일본인들은 한인에게 여권발급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나는 한복을 입고 나왔지만 상해에 도착한 이후로는 중국옷을 입었다. 날밤을 새고 달려서 상해로 왔다. 아버지가 중국까지 나와 동행해 주었다. 당시 많은 한인들이 조선을 떠나 중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상해에서 배를 탄 후부터는 나는 중국인처럼 행동했다. 일본인들이 배를 탄 한인들을 추적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면 나는 중국말[광동어]로 대답해야만 했다. 미국으로 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25)

위의 인용문은 밀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진신부 우명원 진술이다. 그녀는 가족들을 두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신랑이 보내준 배표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출발해야만 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두고 미국에 왔다. 샌프란시스코까지 2주 정도 배를 탔고 여행 내내 중국옷을 입고 있다가 미국에 도착 후 양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녀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한인 목사와 신랑이 이민국으로 마중을 나왔다. 그녀는 밀항하였기 때문에 이민서류가 없었지만 난민이라는 신분이 인정되어 입국이 허가되었다.26)

사진신부 신강애의 진술에 따르면 1919년 3·1운동 이후 한인에 대한 여권발급은 더욱 어려워졌다.27) 이 시기 이후에는 밀항이 더 빈번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밀항을 통해 미국으로 오는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혹은 시애틀에 도착하였는데 한반도 북부 지방을 지나 만주 그리고 상해를 거쳐야 했다. 신부들은 중국인으로 변장한 채 일본경찰을 피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미국 증기선의 예약날짜를 기다리며 도망 다닌 것이다. 밀항이 성공한 이후에도 이들은 일본경찰을 피해 도망 다녔다. 이들이 밀항한 배에는 일본경찰들이 한인들을 찾아 다녔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강애의 여동생의 경우 1919년 이후 여권발급이 안 되어서 먼저

25) 사진신부 우명원의 구술 내용 발췌. Sunoo, Op. cit., p.65.
26) 사진신부 우명원의 구술 내용 발췌. Ibid., p.66.
27) 사진신부 신강애의 구술 내용 발췌. Ibid., p.48.

중국 해주로 이동하였다. 여동생은 중국에서 3년간 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공부한 이후 중국옷을 입고 중국인처럼 행동한 결과 밀항에 성공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강애의 남동생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28]

> "삼촌은 러시아에 있었고 오빠는 미국에 있었다. 미국에 사는 지인이 사진결혼을 주선해 주었다. 상해에서 나는 중국인 옷을 입고 미국으로 왔다. 당시 일본인들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일본 고베에서 모든 한인들은 배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중국옷을 입은 채 중국어를 사용해서 중국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에 있을 때 나는 한복을 입었었다. 나는 상해에서 시베리아 호를 타고 중국을 출발해 호놀룰루에 도착한 후 미국으로 왔다. 나는 두려울 게 없었다."[29]

사진신부 신선희의 경우 러시아에서 출발한 사례이다. 그녀는 상해에서부터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옷을 입었다. 그녀에 따르면 일본인 검사관은 한인들에게 미국으로 가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여권이 없었다. 그녀가 고베에 도착했을 때 한인은 배에서 내리라고 했다. 그녀는 중국옷을 입고 중국말을 사용하여 중국인으로 인정받아 미국으로 가는 여정을 통과하였다. 밀항을 선택한 신부들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또 다른 관문이 남아있었다. 이민수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00불의 예치금과 함께 아시아 차별법과 미국 이민법을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즉 밀항을 선택한 한인신부들은 일본경찰과 미국정부의 법적 장치들을 통과해야만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30]

그러나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신부들이 모두 밀항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도항면허장이 없어서 일본경찰에 잡혀 취조당한 채 부산으로 돌아온 사례들도 있었다.

---

28) 사진신부 신강애의 구술 내용 발췌. Ibid., p.48.
29) 사진신부 신선희의 구술 내용 발췌. Ibid., pp.57-58.
30) 이는 1907년 행정명령과 함께 1910년에서 1945년 사이 미 대륙에 도착한 한인의 수가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 다섯 소녀는 상해에 가서 지난 번 그 항구를 출발하는 차이나 호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고자 할 때 상해령 경찰의 취조를 만나 해외도항 면장(免狀)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억류되어 24일을 문사에 힙항했던 춘일환으로 동수산 경찰서으로 보내어 그 밤 하관[시모노세키]서 떠나는 관부 연락선으로 부산으로 왔는대 모두 그리 천한 사람들은 아니오 각자 수백원 이상 천원까지 여비를 가졌더라는대 모두 상당한 가정의 부녀자이라더라."(현대어 표기-인용자)[31]

위의 기사는 다섯 명의 한인소녀들이 미국에 가고자 상해에서 밀항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일본경찰에게 잡혀 부산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당시 밀항을 시도한 여성들 가운데 나이가 어린 소녀들이 많았고 이들이 소지한 돈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일본여권과 미국비자

그렇다면 도항면허장을 얻은 신부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였을까? 사진신부 김순년의 비자발급과정을 토대로 천연희, 박계율 그리고 이영옥의 진술을 추가하여 사진신부의 미국에 입국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신부의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호적등록->여권발급->호적발급->미국비자 발급->건강검진->이민심사의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신부가 신랑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시키는 것이다. 사진신부 김순년의 경우 1917년 7월 10일 자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사진신랑 염시문의 아내로서 호적등록을 신청하였다.[32]

두 번째로 여권 곧 여행권 발급의 신청이다. 김순년은 신랑 염시문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권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신랑의 아내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자격으로 일본여권이 발급되었다.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일본경찰이 며칠씩 경찰서로 불러 문답을 하였다.[33] 또한 의사에게 십이지장충

31) 「5명의 소녀 미국에 밀항하고자, 사진혼인을 하러 가는 것인가」, 『매일신보』, 1917.11.28.
32) Patterson, Wayne., *The Ils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237.
33) 박계율은 당시 시골 오지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순사와의 문답을 위해 경찰서를 여러 차례 방문

과 트라코마 눈병(유행성 결막염의 일종)을 검사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일본 외무성 총독부 검사국에 제출하였다.[34] 호적을 신청한 후 1년 정도가 지난 1918년 6월 28일 자로 김순년의 일본여권이 발급되었다. 여권번호는 108622번으로 여권에는 손글씨로 "노동자 이주민의 친척: Baron Goto Shimpei[당시 외무대신의 이름]"라고 쓰였다. 이는 신랑 염시문이 미국에 거주하는 노동자이고 김순년은 그의 아내 곧 가족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여권 소유자의 외모에 대한 묘사도 간략하게 기록되었다. 가령 "나이: 16살 1달, 키: 4피트 11센치, 얼굴: 작음, 얼굴빛: 어두움, 눈 :큼, 눈썹: 두꺼움, 입: 큼." 이렇게 작성되었다.[35]

세 번째 단계로는 혼인신고 이후 신랑의 호적으로 신청했던 김순년의 일본호적의 발급이다. 그녀는 여권이 발급된 이후 한 달이 지난 1918년 7월 5일 자로 일본호적이 발급되었다.[36] 일본호적에는 신랑 염시문의 이름과 시부모의 이름 및 출생일이 각각 기록되었다. 그리고 김순년의 이름과 그녀의 가족정보도 기록되었다. 그녀는 자녀들 가운데 장녀로 그녀의 부모님의 이름까지 기록되었다. 그녀의 출생일은 메이지 35년인 1902년 6월 11일로 표기되었다.

네 번째는 미국비자의 발급이다. 일본호적이 발급된 이후 대략 3주 약 21일이 지난 1918년 7월 26일자로 김순년에게 미국비자가 발급되었다.[37] 아래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김순년의 미국비자의 번호는 6551번이다.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Sunoo, Op. cit., pp.278-279.

34) 문옥표 외, 앞의 책, 169면.

35) Patterson, Op. cit., p.237.

36) Ibid., p.237.

37) Ibid., p.237.



〈사진 1〉 미국비자가 찍힌 김순년의 여권

이는 요코하마의 미국 총영사관에서 발급되었고 부영사가 서명하였다. 정리해보면 김순년은 1917년 7월 16일에 사진신랑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녀의 미국비자는 1918년 7월 26일에 발급된 것이다. 요컨대 한인신부가 일본여권과 미국비자를 모두 발급받기까지는 혼인신고 이후부터 대략 1년이 넘게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건강검진이다. 미국비자가 발급되기 전 신부들은 이미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 거주했던 신부들은 대부분 부산으로 와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에 내려 다시 일본 기차를 타고 고베나 요코하마에 와서 한인여관에 투숙하였다. 당시 하와이로 가는 신부들은 고베나 요코하마에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여권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십이지장충과 눈병 검사를 다시 통과해야만 미국으로 가는 배에 승선할 수 있었다.천연희에 따르면 눈병 검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십이지장충 검사는 2주에 한 번 있었다. 즉 눈병은 매주 검사가 가능하지만 십이지장충 검사에 불합격할 때는 2주에 한 번씩 재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38] 신랑이 돈을 보내주지 않거나 신부의 가족들이 신랑이 보낸 돈

38) 문옥표 외, 앞의 책, 179면.

을 신부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신부는 여관에 빚을 지기도 하였다. 신부들은 두 검사 모두 통과해야 미국에 갈 수 있었다. 신부가 검진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와 여관비와 같은 체류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검사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바로 미국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배의 수가 적고 승선할 사람이 많은 경우 신부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제비뽑기에 떨어진 신부들은 또다시 2주를 기다려야만 했다.

마지막 단계는 이민심사이다. 이전 단계에서 건강검진을 모든 합격하고 제비뽑기에 성공하면 신부들은 비로소 배에 승선할 수 있었다. 하와이의 경우 대략 2주 그리고 미 대륙의 경우 대략 3-4주가 지나면 신부들은 미국에 도착하였다. 신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곧바로 이민국으로 갔다. 신랑이 올 때까지 이민국에 갇혀서 기다리는 것이다. 하와이의 경우 신랑들은 여러 섬에 걸쳐서 살았기 때문에 호놀룰루 이민국까지 오는데 시일이 소요되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 통역관은 신부를 불러서 이민수속을 받게 도와주었다. 즉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야만 신부는 한인 통역관과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민국 직원은 통역관을 통해 신부의 이름, 나이, 영어능력, 남편의 이름, 남편의 거주지 등을 물었다.[39] 1917년 강화된 이민법으로 신부들은 문맹테스트도 받게 되었다. 문맹테스트는 신부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고 통역관의 도움 없이 영문과 국문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민국 직원은 신랑과 신부를 불러서 사진 속의 부부가 맞는지를 확인했다. 이 모든 과정이 통과된 이후 신부는 비로소 이민국 밖, 미국 땅에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40]

위에서 설명한 단계들을 거쳐서 1910년에서 1924년 사이 미국으로 입국한 한인여성은 총 1,552명이었다.[41] 그중 사진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한인신부의 숫자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시기 이

39) 같은 책, 185-187면.
40) Yoon, Op. cit., pp.46-47.
41) 조은정・송병건, 「20세기 초 하와이 한국인 이민의 요인과 이민자의 특성」, 『경제사학』 51, 한국경제사학회, 2011, 111면.

민국 자료에서는 입국자의 결혼여부와 함께 성별과 연령대는 확인가능하다. 한인신부의 대다수가 14세에서 44세 미만의 여성들이었으므로 이 숫자로 제한시켜 계산해보면 대략 842명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42] 그러나 모든 신부의 연령대를 44세 이하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적어도 사진결혼 초기에는 40대 과부들 가운데 신부가 된 사례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43] 그러나 이 모든 사례들 가령 44세 이상 과부 그리고 난민 혹은 학생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인여성들을 포함시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한인신부의 전체 숫자는 채 1,000여명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44]

3. 사진신부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

1) 사진신부의 '상상된' 미국

가족, 친적, 지인, 혹은 목사와 같은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사진결혼을 제외하면 한인신부의 결혼은 인물거간군과 관련되어 있다. 인물거간군의 미국에 대한 다소 '미화된' 거짓말은 어린 소녀들에게 사진결혼이 일생일대의 기회로 느껴지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우리선생님들도 깜짝 놀라, '네가 왜 하와이로 가느냐, 남편 될 사람도 보지 않고, 그곳에 간 사람들은 다 무식꾼 농민이다.'하였지만 나는 그때는 외국 갈 희망에 사랑이고 무엇이고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자유의 나라에 갈 생각밖에 없었다. 시집을 가서 남편과 사랑하고 살겠다는 마음은 둘째요, 외국 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 갈팡질팡 없이 주선하였다."[45]

---

42) 같은 글, 111면.
43) 「사진결혼을 권고, 남편을 맞으러 포아로, 십 여명의 여자 권유원」, 『매일신보』, 1914.12.29.
44) 한인 사진신부의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대략 100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900여명이 하와이로 100여명이 미대륙으로 이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홍윤정은 실제로 미국으로 이주한 사진신부의 수는 대략 600명이라고 주장하였다. 홍윤정, 앞의 글. 최근의 사진신부의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여 대략 600-1000명 정도로 한인신부의 숫자를 소개하기도 한다.
45) 천연희의 구술내용 발췌. 문옥표 외, 앞의 책, 167면.

위의 인용문처럼 당시 학교에 다니던 소녀들은 주변 선생님들로부터 사진결혼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46] 그러나 미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해 소녀들은 그런 충고가 들리지 않았다. 위의 진술로 미루어 보건대 한인 신부들 가운데 미국에 간다는 생각에 사진결혼을 선택한 이들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혼여성들의 미국에 대한 열망은 단지 한인신부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20세기 전반기 일본인 사진신부 그리고 유럽인 사진신부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사진결혼을 선택한 이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 "저는 아버지에게 미국에 갈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야 했어요. 저는 미국에 가는 것이라고 썼어요."[47]

위의 진술은 일본인 사진신부가 사진결혼을 결정한 이유이다. 오늘날 사진결혼 연구자들은 일본인 사진신부의 수가 전체 사진신부들 가운데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대륙에서는 대략 2-3만 명 그리고 캐나다 지역은 1만 명 이상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48] 위의 인용문은 당시 일본의 미혼여성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 "엄마, 엄마, 저에게 100리라를 주세요,
> 제가 가고 싶은 미국에 가기 위해서요.
> 저는 100리라를 돌려주지 않을 거에요.
> 그리고 미국으로."[49]

---

46) 천연희 외에도 우명원, 윤연도 등 당시 학교에 다니던 신부들은 학교선생님의 반대를 경험하였다. Sunoo, Op. cit., 2003.

47) Nakano-Glenn, *Issei, Nisei, War Bride: Three Generations of Japanese American Women in Domestic Servic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6. p.45.

48) Tanka, Kei, "Japanese Picture Marriage in 1900-1924 California: Construction of Japanese Race And Gender", Ph. D Diss., Rutgers University, 2002.

49) Zug, Marcia, *Buying a Brid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p.175.

위의 인용문은 당시 이탈리아의 대중가요 가사 중 일부이다. 20세기 초 백인여성들은 혼자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당시 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성행했기 때문이다.[50] 위의 노래가사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절규하는 어린 여성의 노래이다. 이탈리아 사진신부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중가요가 존재했다는 것은 당시 이탈리아 여성들 가운데 사진신부가 되어 미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이상의 일본인 사진신부의 구술과 이탈리아의 노래가사로 미루어보건대 20세기 전반기 동서양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미혼 여성들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으로 이주하고자 한 사진신부의 동기는 각기 자국에서의 상황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결국 미국의 제국주의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탈리아나 일본 모두 제국주의의 국가였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국주의의 국가에서도 가장 상위에 위치한 국가였다. 즉 제국주의 국가 간 위계는 존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20세기 초반 미국과 후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위계질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은 신흥국가였고 당시 국제정세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은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컸기 때문이다.[51] 그러나 19세기 중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골드러시라는 이주현상과 이후 미국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경제적 번영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 드러나는 대중문화에서의 미국의 위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아시아여성들 뿐 아니라 유럽여성들 사이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50) Ibid., p.280.

51) 미국의 고립주의(American Isolationism 또는 United States Non-Interventionism)은 미국 건국부터 미국의 기조로 여겨졌다. 이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까지 미 정부가 세계대전을 비롯한 여러 전쟁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20세기 전반기까지 미국은 외교적 중립을 강조한 국가였고 이러한 점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미국의 위치는 오늘날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상황과는 달리 경제와 문화의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최상위에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과 이탈리아 출신 신부들과는 달리 한인신부는 제국주의 국가 출신이 아닌 식민지 출신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인신부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조선의 식민주의적 상황이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와 맞물려 발생한 일이었다. 1907년에서 1908년 사이 미국과 일본이 맺은 신사협정으로 일본인 사진신부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1910년 말부터 한인신부들도 그 뒤를 이어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신부의 이주의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뿐 아니라 일본과 조선의 '제국과 식민지'라는 특수한 관계도 놓여 있었다.[52] 또한 한인신부의 이주는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미국의 제국주의가 겹쳐진 측면도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출신 사진신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당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것처럼[53] 한인신부들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열망을 품은 채 곧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54] 요컨대 일본의 식민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가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교차하여 한인신부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재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형성된 한인신부의 아메리칸 드림은 과연 어떠한 작용을 통해 발생한 것일까?

2) 사진결혼의 동기

한인 사진신부의 아메리칸 드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인신부의 결

52) 1907년과 1908년 사이 미국과 일본의 신사협정으로 한인신부가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한인신부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의 부속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한인신부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뿐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 조선과 미주한인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식민지적 통제의 일환으로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은 당시 독립운동자금의 본거지였던 미주한인사회의 한인남성의 반일감정을 줄이고자 사진신부에게 여권발급을 허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노선희, 「일본의 식민지적 통제와 미국 이민법의 네트워크」, 『사회와 역사』 129, 한국사회사학회, 2021.

53) 유럽과 일본 출신 사진신부들 구술 가운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미국에 가고 싶어졌다는 내용도 있다. 당시 미국의 영화와 같은 문화적 요인은 미혼여성들의 아메리칸 드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54)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여성 집단별로 그 논의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으로 유학을 간 엘리트여성 집단과 사진신부 집단은 그 이면에 작용한 동기가 달랐을 것이고 미국에서 이들이 위치 또한 달랐을 것이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혼의 동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한인신부집단이라 할지라도 사진결혼의 동기는 출신지역・계층・경제적 상황・교육경험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진신부는 결혼을 통한 이주의 사례로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이 이들의 이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저는 미국은 '황금으로 된 나라'라고 들었고 저 또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곱 명의 아이들을 키웠어요. 8번째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학교에 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끔찍한 대공황 시기에도 저는 아이들을 혼자 다 키워야만 했어요."[55]

위의 사진신부의 구술처럼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한인들에게 미국은 '황금으로 된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 조선에서 가난이라는 환경에 놓인 여성들에게 사진결혼을 통한 미국으로의 이주는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에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함께 서구문화 곧 미국문화에 대한 동경도 이들의 이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특히 이 여성들은 고등교육의 기회 곧 영어공부에 대한 열망과 가부장 중심의 봉건적인 사회가 아닌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도 컸다. 더러는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여성들도 있었다. 요컨대 사진신부의 사진결혼의 동기는 매우 다양했다.[56]

그러나 한인신부의 결혼의 동기에서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의 표는 미국에서 조사된 한인신부의 고등교육을 경험을 표로 만든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무학이 거의 30%에 육박했으며 4년 이상의 교육을 경험한 신부들은 대략 26% 정도였다.[57]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의 문맹률을 80%정도로 알려진 것에 비교해 보면 한인신부의 조선에서의 교육경

55) 사진신부 김명숙의 구술 내용 발췌함. Sunoo, Op. cit., pp.292-293.
56) 패터슨, 앞의 책, 143-147면.
57) 같은 책, 144면.

험은 평균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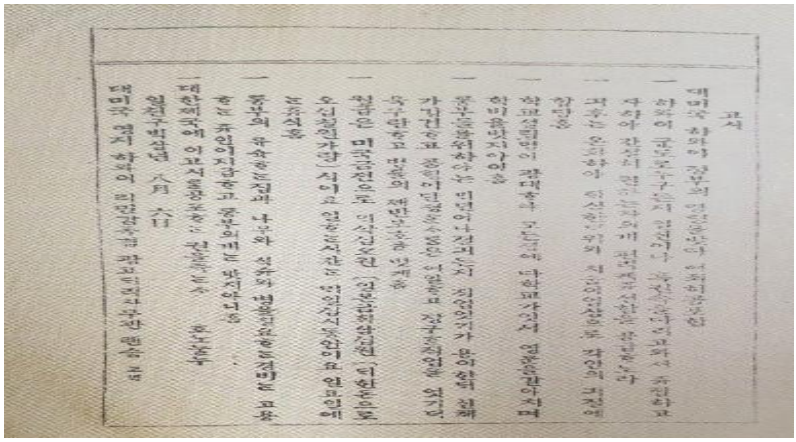
〈표 1〉 사진신부의 조선에서 교육경험[59]

기간(년)	인원(명)	비율(%)
무학	14	29
1-3	22	45
4-6	8	16
7-9	4	8
10-12	1	2
합계	49	100

또한 사진신부의 결혼의 동기를 분석해보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이주한 사례는 전체 조사인원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60] 앞서 논의한 한인 신부의 조선에서의 교육경험과 함께 신부들은 미국교육을 경험하고자 사진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즉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많았던 것이다. 한인신부의 미국에서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사진결혼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노동이주와 관련되어 있다. 1903년 대한제국은 해외로의 이민을 전국에 고시하였다. 이는 하와이로 노동이주를 떠날 이민자를 모집하는 광고였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당시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감리교회들 가운데 평양교회와 인천교회 출신들이 많았다.[61] 그러나 노동이주를 한 모든 한인들이 교회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중 이민고시를 보고 지원한 사례들도 있다. 가령 사진신부 윤연도의 신랑인 윤영호의 경우 평양의 한 칠성각에 붙은 이민고시를 보고

58) 노영택, 「일제 강점기의 문맹률 추이」, 『국사관논총』 51, 국사편찬위원회, 1994.
59) 패터슨, 앞의 책, 144면.
60) 사진신부의 구술 자료를 분석해보면 47%(9명)은 영어를 포함한 미국의 교육을 경험하고자 사진결혼을 감행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을 경험한 사례는 21%(4명)이었다. Sunoo, 앞의 책, 2002. 김지원의 연구에서도 교육을 목적으로 사진결혼을 선택한 신부들이 대략 60%로 분석되었다. Kim Jiwon, "Korean Pioneer Women: Picture Brides and the Formation of Upwardly Mobile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s-1930s", *Korea Journal,* Vol.60, No.1, 2020, p.212.
61) 하와이 한인교회의 명단을 보면 교인의 수는 대략 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덕희, 「하와이 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기독교와역사』 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노동이주를 지원해 하와이로 왔다.[62] 이로 보건대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한인 일반에게 이민고시는 서구국가로의 이주를 실행가능하게 한 대한제국의 '이민정책'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노동이주가 중단된 이후에도 조선에서 이민고시의 여파는 계속되었다. 사진신부들 가운데 미국에서의 교육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는 고시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사진 2〉 1903년의 고시[63]

고시의 세 번째 항목을 보면, "학교설립법이 관대하여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미국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학교에 입학하고 영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에서 교육을 경험하기 힘들었던 여성들이 자원해서 사진신부가 되어 미국으로 이주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인물거간군들 중 정기원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어린 소녀들에게 사진결혼을 권유하였다. 이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그와 같은 신문기사를 통해 사진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62) Sunoo, Op. cit., p.92.
63) 1903년(고종 40) 8월 6일 각처에 붙인 하와이 이민자를 모집하는 광고인 '고시'의 사진이다.

이 조성되었다.[64]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린 신부들에게 효과적인 유인책 중 하나는 바로 교육기회 제공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한제국의 이민고시에 등장하여 인물거간군에 의해 홍보되었던 미국의 무료교육혜택은 조선에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소녀들에게 제법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3) 식민지 조선에서 '재현된' 미국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한인신부의 사진결혼의 주된 동기는 미국에서의 교육이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조선의 적지 않은 미혼여성들이 미국에 대한 동경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미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을까? 당시 조선의 광고를 해석한 문화사적인 방법과 조선 엘리트의 기록을 통해 미국의 위상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광고는 당대의 경제구조와 사회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65] 근대광고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욕망을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66] 식민지 조선인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욕망은 광고물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광고라는 매개체를 통해 조선의 사회현상이었던 사진결혼을 들여다보고 20세기 초 조선의 여성들의 욕망 특히 미국으로 결혼이주를 감행한 사진신부들의 욕망을 조선의 신문광고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석해보고자 한다.

---

64) 「사진결혼 수단이 유한 인물거간군을 방함」, 『조선일보』, 1921.8.5. 기사는 정기원이라는 인물거간군의 신분과 그의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정기원은 어린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사십 세 혹은 오십 세 되는 남성과 결혼을 중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가 등장한 이유는 당시 조선에서 미국에 대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소녀들에게 이민고시의 내용을 이용해 사진결혼을 성사시키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65) 서범석 외, 「근대인쇄광고를 통해 본 근대적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개화기~1930년대까지 몸을 구성하는 상품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5-1, 한국광고학회, 2004.

66) 우선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의 근대광고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인의 욕망이 중개자 곧 광고물을 통하여 매개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병희·신인섭, 「미시사적 관점에서 본 근대광고의 근대성 메시지 분석」, 『광고학연구』 18-3, 한국광고학회, 2007.



〈사진 3〉 근대의 광고[67]

1905년 12월 28일『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담배광고를 보면 상품은 국문인데 상품의 겉면은 영어단어로 표기되어 있다. 가령 거미표(Spider), 태극표(Key), 원시경표(Telescope)로 나타나면서 미국 버지니아 생산이라고 영어 설명을 하였다. 이 시기 담배 광고들은 영어브랜드 이름이 다수인데 이는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단지 이국적인 이미지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소위 말해 양품(洋品)이라는 것이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68]『만세보』에 1906년 11월 5일자 실린 위스키 광고에서는 서양에서 출발하여 세계 각국에 전파된 위스키 상품을 '모두 알고 있다(皆知)'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선에서의 양품의 바람은 '미국 상상품'이라는 광고로 등장한다.[69]『동아일보』1924년 2월 15일 광고를 보면 미국 의학박사 어을빈은 보재약, 만병수, 그계랍 위에 미국상상품(上上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냥 양품이 아닌 미국 제품으로 상품도 아닌 상상품 오늘날 언어로 해

67) 김병희,『광고로 보는 근대문화사』, 살림, 2014, 13면, 16면, 89면.
68) 같은 책, 14면.
69) 같은 책, 16면.

석하면 'VVIP'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70]

이와 같이 담배, 위스키 그리고 의학 관련한 미국의 상품들은 조선의 대중들에게 문명화된 물건이자 고가의 제품으로 어필되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조선 대중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문명화되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에서 수용되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20세기 전반기 광고라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가늠할 수도 있지만 당시 엘리트들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의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으로 볼 때 여타 종교들의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가 가장 우수한 것이다."[71]

> "정말 훌륭한 나라로구나-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서 귀찮게 하지 않는 곳이구나.[72]"

첫 번째 인용문은 윤치호가 개인 신분으로 미국유학을 마친 직후에 작성한 서술이며 두 번째 인용문은 그가 정부 관리로서 공식적으로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작성한 기록이다. 윤치호는 미국 유학시절 심한 인종차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백인사회의 실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호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 엘리트의 미국에 대한 관심은 공식적으로는 보빙사(報聘使)[73] 파견에서부터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들은 일본

---

70) 김병희, 앞의 책, 89-90면.
71)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1893년 9월 24일」, 『윤치호 일기 3』, 탐구당, 1971.
72)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1905년 9월 8일」, 『윤치호 일기 6』, 탐구당, 1971.
73) 보빙사는 우호, 친선, 교섭을 위한 보빙(報聘)을 명목으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단으로서 본고에서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로 미국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미국으로 보낸 사절단을 일컫는다. 1883년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 그러나 외교사절단의 미국으로의 파견이라는 사실은 당시 조선 엘리트의 미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과 중국이라는 창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직접 파견되는 조선의 사절단인 보빙사를 '급진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하였다.[74] 미국으로 파견된 조선의 엘리트들은 미국의 관세, 우편제도, 공교육제도 등 신문물을 배우고자 하였고 이후 대한제국은 '미국형'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75] 이와 같이 보빙사 파견과 윤치호 일기 등은 당시 조선의 엘리트 남성들이 미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조선 대중들 못지않게 엘리트 남성들도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문화를 동경한 측면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보빙사 파견과 같은 정치적 사건과 위에서 제시한 광고물의 출현 시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볼 때 미국에 대한 동경의 감정은 조선 엘리트 남성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로 보건대 조선에서 미국에 대한 관심과 동경은 엘리트에서 시작하여 대중으로 옮겨지면서 그 위상이 점차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교차, '사진결혼'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대중들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대한 동경은 조선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조선인들의 관심은 위에서부터 시작된 경향이 있다. 특히 남성엘리트의 미국을 향한 관심은 고종의 보빙사 파견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광고라는 문화를 통해서도 '문명화된 고급스런' 미국의 이미지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진신부들 또한 사진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에 합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의 아메리칸 드림 속의 미국은 엘리트들과 대중들이 형성한 '미화된' 미국이었다. 예컨대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Katura-Taft Agreement)을 통해 필리핀을 지배하는 대신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를 인정

74) 손정숙, 「한국최초 미국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29, 한국사상사학회, 2007, 254면.
75) 같은 글, 277면.

해 준 제국주의 국가였다.[76] 또한 미국은 일본과 동일한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제국주의 국가 간 위계는 존재했다. 즉 한인들에게 미국은 조선을 직접 침략한 일본과는 달랐고 제국주의 국가들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제국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선에서 미국은 마치 '독립과 해방의 거의 유일한 구원자'와 같은 이미지가 형성되었다.[77] 이는 당시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보빙사부터 시작하여 3·1운동에까지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고종으로부터 시작된 남성엘리트들의 미국에 대한 선망과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기반한 3·1운동[78]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난 독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조선사회에서 '미화된' 미국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조선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은 대한제국의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에서 시작되어 이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식민통치로 인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식민지 조선의 한인들은 위태로운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 '미화된' 미국을 통해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인의 아메리칸 드림은 일본의 식민지 상태의 조선에서 등장한 거시적인 사회현상이었고 한인신부의 아메리칸 드림은 그러한 현상에서 비롯된 미혼여성의 미시적인 반응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인신부의 아메리칸 드림은 일본과 이탈리아 출신 사진신부의 그것과 유사해보

76) 당시 학생으로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인들도 아메리칸 드림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송명진, 「조선의 아메리칸 드림과 식민지인의 자기 인식—미국 유학생 잡지 『우라키』(*The Rocky*)소재 문학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5,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146면.

77)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푸른역사, 2017, 196면.

78) 3·1운동의 발생배경과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3·1운동 전 발생한 2·8운동은 민족 자결주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논의된다. 윌슨의 주장은 국제적 흐름에서 기인한 이상화된 논의로 볼 수 있다. 박현숙,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세계평화」, 『미국사연구』 33, 한국미국사학회, 2011. 그러나 식민지인들 가령 한인들에게는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송지예, 「민족자결 수용과 2·8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1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2. 또한 3·1운동이 2·8운동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윌슨의 주장은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덕,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필자는 3·1운동은 2·8운동처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그 운동의 중심축이 대중으로 옮겨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발생한 3·1운동은 당시 미국이 한인들에게 미친 영향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지만 그 맥락은 달랐다. 한인신부의 '상상된' 미국은 그 속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작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인신부들은 본국에서부터 식민주의를 배태한 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는 미국의 여러 사진신부집단들 가운데 한인신부들이 유일하게 정치활동 곧 본국의 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된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79]

그러나 한인신부가 본국에서부터 배태한 것은 식민주의만은 아니었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를 배태한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인신부들이 모두 기독교신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기독교 여학교를 다녔거나 기독교 선교사를 접하면서 미국을 알게 된 여성들도 많았다. 이들은 조선에 파송된 백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을 '상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신부는 교회에서 백인선교사 가족을 처음 본 후 미국인들에게 매료당했다고 말하였다. 그녀에게 백인 선교사는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 그 이후로 그녀는 '미국(fairyland of America)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고 미국(dreamland)이라는 말은 마치 마법의 주문(magic word)처럼 자신을 흥분시켰다.'고 고백하였다.[80] 이와 같이 사진신부들은 자신이 접한 백인선교사들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은 마치 그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상상'하게 된 것이다. 또한 조선의 광고에서 재현된 미국의 '문명화되고 고급스런' 이미지와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미화된' 미국은 조선의 미혼여성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강화시켰을 것으로 생각한다.[81] 그리고 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진결혼'이었다. 밀항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한 신부는 '나는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미국에 가고 싶었다. 그것[사진결혼]은 나의 유일한

79) 한인신부집단은 사진신부 집단들 가운데 유일하게 본국의 저항운동에 참여하였다. 20세기 전반기 미국 이민법에서 아시아인 사진신부들은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의 신분이었으나 한인신부들은 저항운동 참여라는 점에서 정치적 존재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후속연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80) Yoon, Op. cit., p.22.

81) 앞서 논의한 것처럼 한인신부의 사진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육이었다. 한인신부들 가운데 조선에서 기독교여학교를 다녔던 이들도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 문화와 함께 서국의 문명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사진신부들에게 미국은 교육을 경험할 수 '국가'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었다.'라고 말하였다.[82] 즉 사진결혼은 식민지 조선의 미혼여성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사진결혼은 식민지 조선여성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의 대안으로 선택된 측면도 있다.[83]

이상을 정리해보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 조선사회 기저에는 위로부터 시작된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이 내면화된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결혼 또한 한인신부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이 작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의 식민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식민지 조선에서 교차되어 사진결혼으로 재현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0세기 전반기 발생한 사진결혼은 조선의 미혼여성들의 아메리칸 드림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4. 나오며

사진결혼은 1910년에서 1924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물거간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진결혼 초기에는 신랑신부의 가족이나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으나 이후에는 인물거간군의 활동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물거간군의 활약을 통해 더 많은 수의 신부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인의 사진결혼과정을 살펴보면 사진신부들은 인물거간군의 도움으로 사진촬영을 한 후 사진교환을 통해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결정하였다. 혼인이 성사된 한인신부는 '호적등록-여권발급-호적발급-미국비자발급-건강검진-이민심사'의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한인신부들에게 일본여권이 발급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 상해에서 밀항을 통해 미국에 도

82) Sunoo, Op. cit., p.78.

83) 사진결혼은 한인신부들에 의해 미국이주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결혼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신부들이 마주한 것은 결국 '미화된' 미국의 실체였다. 20세기 전반기 인종차별이 구조화된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에서 한인신부들은 주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한인의 '피식민지민과 식민지민'의 관계로 인해 한인신부들은 아시아사회에서 이중으로 주변화된 측면이 있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착한 후 이민국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인의 사진결혼은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한 측면이 존재한다. 고종으로부터 시작된 엘리트남성들의 '상상된' 미국은 이후 대중들에게도 전해져 '미화된' 미국의 이미지를 형성시켰기 때문이다. 한인신부들도 이러한 배경 하에 사진결혼제도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인의 사진결혼은 한인신부의 '상상된' 아메리칸 드림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과 조선인의 '상상된' 미국이 겹쳐져서 나타난 것이었다. 요컨대 일본의 식민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조선에서 교차하여 사진결혼으로 재현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진결혼은 당시 조선의 미혼여성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民硏 RIMS

▮ 참고문헌

『大韓每日申報』, 『東亞日報』, 『萬歲報』, 『每日申報』, 『朝鮮日報』.

강진구, 「국제결혼담론의 계보학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0-2, 숙명여대 아시아연구원, 2011, 211-236면.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윤치호 일기』 탐구당, 1971.

김민정, 「미국가기와 결혼하기: 하와이 한인 이주여성의 종족간 결혼」, 『가족과 문화』, 24-3, 한국가족학회, 2012, 98-130면.

김병희, 『광고로 보는 근대문화사』, 살림, 2014.

김병희·신인섭, 「미시사적 관점에서 본 근대광고의 근대성 메시지 분석」, 『광고학연구』 18-3, 한국광고학회, 2007, 97-129면.

김인덕,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199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27면.

노선희, 「일본의 식민지적 통제와 미국 이민법의 네트워크」, 『사회와 역사』 129, 한국사회사학회, 2021, 229-261면.

노영택, 「일제 강점기의 문맹률 추이」, 『국사관논총』 51, 국사편찬위원회, 1994.

문옥표 외,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일조각, 2017.

박용옥, 「美洲 韓人女性團體의 光復運動의 支援 硏究」,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1994, 265-305면.

박현숙,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세계평화」, 『미국사연구』 33, 한국미국사학회, 2011, 149-190면.

서범석 외, 「근대인쇄광고를 통해 본 근대적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개화기~1930년대까지 몸을 구성하는 상품광고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15-1, 한국광고학회, 2004, 227-266면.

손정숙, 「한국최초 미국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29, 한국사상사학회, 2007, 247-282면.

송명진, 「조선의 아메리칸 드림과 식민지인의 자기 인식—미국 유학생 잡지 『우라키』(The Rocky) 소재 문학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5,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143-166면.

송지예, 「민족자결 수용과 2·8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1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2, 179-209면.

오은영,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웨인 패터슨, 정대화 옮김, 『아메리카로 가는 길: 한인 하와이 이민사, 1896~1910』, 들녘, 2002.

_____,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들녘, 2003.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푸른역사, 2017.

이경원 외, 장태한 옮김, 『외로운 여정』, 고려대 출판문화원, 2016.

이덕희, 「하와이 감리교회의 초기 교인들」, 『한국기독교와역사』 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285-339면.

이선주·로버타 장,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이화여대 출판부, 2014.

조은정·송병건, 「20세기 초 하와이 한국인 이민의 요인과 이민자의 특성」, 『경제사학』 51, 한

국경제사학회, 2011, 105-134면.
현순, 『포와유람기』, 일한인쇄주식회사, 1909.
홍윤정, 「하와이 한인사회의 형성과 애국의식 연구: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5.
황정미,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한국여성연구소, 2009, 1-37면.

Gabaccia, Donna R.“Feminization of Migration,”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2016.
Glenn, Evelyn Nakano. *Issei, Nisei, War Bride: Three Generations of Japanese Americ an Women in Domestic Servic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6.
Kim, Jiwon. “Korean Pioneer Women: Picture Brides and the Formation of Upwardly Mobile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s-1930s, *Korea Journal,* Vol.60 N o.1,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pp.207-238.
Patterson, Wayne. *The Ils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Piper, Nicola. “Gendering the Politics of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40 No.1, 2006, pp. 134-164.
Sunoo, Sonia Shin. *Korean Picture Brides: 1903-1920: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 Indiana: Xlibris, 2002.
Tanaka, Kei. “Japanese Picture Marriage in 1900-1924 California: Construction of Ja panese Race And Gender,” Ph. D Diss., Rutgers University, 2002.
Won K. Yoon, *The Passage of a Picture Bride*, Pacific Rim Press, 1994.
Zug, Marcia. *Buying a Brid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Abstract】

At a Crossroad between Japanese Colonialism and American Imperialism

Roh, Sun-Hee*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picture marriage, there were many cases of using human networks such as the family member, relatives and acquaintances of the bride and groom, but there were other cases of moving to the U.S.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Inmulgŏgan'gun (matchmaker). The Korean brides took a photo with the help of the inmulgŏgan'gun, and the bride and groom decided to get married through a photo exchange. The Korean bride, who got married, was able to enter the U.S. through the process of 'registration of family register-passport issuance-issue of family register-U.S. visa issuance-health check-up-immigration screening.' However, Japanese passports were not issued to all brides. Brides who were denied passports arrived in the U.S. via stowaway from Shanghai, China, and entered the U.S. in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by the Immigration Bureau. The Korean's picture marriage can be seen as the 'imagined' American dream of a Korean bride, which originated from the Korea's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This was caused by overlapping the colonial situation of Korea with the 'imagined' United States represented in Korea. In short, ideologies of Japanese colonialism and American imperialism intersected in Korea and was reproduced as a picture marriage. In this regard, picture marriage can be seen as a historical phenomenon that shows the American dream of Korean single women.

Keywords: Picture marriage, Picture bride, Japanese colonialism, American imperialism, 'Imagined' American dream.

접수일: 2021.03.31.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19.

* Ph.D. Candidate, Dept. of Sociolog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